



**2015년 3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업 선정

: 연구원은 지난 2월 중순에 동북아역사재단 국내·외 시민단체지원사업의 일환인 독도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월 20일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 독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표는 연구원과 함께 선정된 단체의 면면들입니다.

번호	단체명
1	한국독도연구원
2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3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4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5	양상블 라 메르 에릴
6	고 최종덕기념사업회
7	흥사단 인천지부
8	<b>(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b>
9	서울 흥사단
10	세이울
11	한국수중환경협회
12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호주)
13	재독 독도지킴이단(독일)
14	Korean Culture, History, and Education Foundation of New England(미 보스톤)
15	Dokdo Eastsea World Organization(미 시카고)

○ 39회 문화강좌 안내

: 2015년 첫 문화강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강좌도 듣고 새로운 보금자리도 구경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 날짜 : 03. 28(토) 16:00 ~ 18:00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사 : 문윤걸 교수(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 주제 : 음악을 통해서 본 동·서양 예술관

## ○ 연구원 춘계답사 실시

: 3월 21일에 연구원 2015년 춘계답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답사는 '지역사 문화유산 자율답사 - 기억의 힘으로 맞이하는 내일' 이라는 주제로 하여, 전남 나주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연구원 회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부생 등이 참여하여 보다 배울 것이 많은 답사가 된 거 같습니다. 또 답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의 이명한 관장, 경담연구소 이철영 소장, 나주시청 김종순 문화재관리 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6월에 예정되어있는 답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 2015년 ]

- 03월 23일 : 주간회의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4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5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6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7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3월 28일 : 39회 문화강좌

## ■ 역사속의 오늘

### ○ 식민지를 목전에 둔 조선인의 조우 - 1908. 03. 23

: 미 국무성 소속 외교관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슨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미국 내에서 일본의 한국 침탈 만행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미국내 여론을 호도하였다. 그는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독립보다 일본과의 합방이 필요하다.' 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서로 알지 못했던 전명운, 장인환 두 조선인은 우연하게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사건 후 미국정부 조사로 확인됨) 스티븐슨에게 방아쇠를 당긴다. 전명운의 총탄이 불발되자 뒤이어 장인환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스티븐슨은 이틀 후 사망한다. 미국 내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사건이 조국에 대한 신념과 용기가 일치된 의거라는 설명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다.

### ○ 평화인가 확전인가... - 1951. 03. 24

: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의 확전을 원했던 맥아더는 만주에 원자폭탄 26개를 투하할 것을 트루먼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명령한다. 그는 결국 항명으로 인하여 북진명령 18일 후인 4월 11일 해임되었다.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려고 했다면 한반도 주위에 코발트 탄(유독 방사능 유출 폭탄)을 떨어뜨려 수십년 동안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야 했다' 은퇴 후 이런 말을 남긴 더글라스 맥아더는 오늘도 인천자유공원에서 자신이 건너온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 ○ 종북목사인가, 조국통일의 혁명가인가 - 1989. 03. 25

: 그는 유신정권이래 예순부터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투옥과 석방을 반복하며 삶의 황혼, 10여년 이상을 수인으로 지냈다. 조국의 한쪽에서는 그를 종북숙주의 시발점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의 혁명가로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사실 그는 신의 종으로 모든 이의 평화와 안녕,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족의 터로 다져질 꿈을 빌며 살았던 영원한 소년이었을 뿐이다. 88올림픽 다음해 오늘, 늦봄 문익환 그는 분명 짝 막혀있던 민간통일운동의 돌파구를 열었다.

○ 스물하나 짱구, 챔피언이 되다 1983. 03. 26

: '짱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권투선수 장정구. 배가 고파 살기 위한 방편으로 글러브를 껴던 그는 1983년 3월 26일 파나마의 사파타를 물리치고 세계챔피언이 되었다. 그 후 5년간 무려 열다섯번에 걸쳐 도전자들을 물리친 후 자신의 허리에 있던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였다. '20세기 위대한 복서 25인'에 선정되었고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는 지금 서울에서 사람들의 곱든 배를 채워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웃음과 눈물의 녹색다이아몬드 - 1982. 03. 27

: 한국 프로야구는 군사정권이 지역감정 이용과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출범시켰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실제 호남을 연고지로 두었던 해태타이거즈는 90년대 후반까지 5월 18일에 광주에서 홈경기를 개최하지 못했다.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 '본다'에서 '즐긴다'는 스포츠로 변화한 프로야구. 올해는 10개의 프로야구단이 많은 이들의 웃음과 눈물을 다이아몬드에 뿌릴 듯.

○ 땅이 꺼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 1993. 03. 28

: 경부선 하행선 구포역 인근 삼성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노반이 함몰되어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전복되어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가 발생, 한국 철도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었다. 철로 30m이내 공사 시 철도청과 협의해야 하는 철도법을 지키지 않은 시행사는 255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6개월 영업정지, 사장구속의 처분을 받은 후 1995년 (주)삼성물산에 합병되었다. (래\*안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다)

○ 국방 의무 기피의 시발점 - 1951. 03. 29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50여만명에 이르는 17세~40세 남성들로 징집 구성된 국민방위군은 "도착지 부산 구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기본적 피복과 식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굶주림과 추위, 질병 속에서 10여만명 가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 당시 이 사태가 국회에서 최초로 폭로된 것이 1951년 3월 29일이었다. 육군 준장의 대우를 받았던 김윤근 국민방위군 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대한청년단의 단장이었다. 국회조사 결과 그들이 빼돌려 정계에 뿌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0여억원. 당시 감찰위원회(현재 감사원) 예산이 3천만원. 사건 당시 이승만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음해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다섯명의 국민방위군 간부만 사형당함으로 진상규명은 요원해진 채 역사의 판단으로 남아있다.